



군산장례(전문)예식장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상상 그 이상을 향해서!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ON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7210 **fax** 051-441-7210
전주 **tel.** 063-211-55000 **fax** 063-211-55000
서울 **tel.** 02-303-7811 **fax** 02-303-7811
영역: 영종대교역 **tel.** 063-281-1500 **fax** 063-281-1500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김민재
운영위원회
newgunsanews@naver.com



채명롱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종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imjim710@naver.com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신솔원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군산예총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김선순 편집위원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Vol.173|2025.09.10

회	장	박 승 일	newgunsanews@naver.com
운 영 위 원 장	김 민 재	newgunsanews@naver.com	
발 행 인	채 명 롱	ml7614@naver.com	
부 사 장	강 권 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부 장	이 종 은	leejony_@daum.net	
취 재 부 장	최 승 호	gsport11@naver.com	
편 집 위 원	강 해 인	godls468@naver.com	
편 집 위 원	박 세 원	hamp38@hanmail.net	
편 집 위 원	신 성 호	shinez2580@hanmail.net	
편 집 위 원	오 성 렬	poi3275@naver.com	
편 집 위 원	이 소 암	lsa6246@hanmail.net	
편 집 위 원	이 영 미	ycm1022@hanmail.net	
편 집 위 원	조 경 신	vip2300@daum.net	
편 집 위 원	최 영 두	cydnovi@naver.com	
편 집 위 원	한 상 오	hansango24@gmail.com	
편 집 위 원	한 대 산	jbekt@naver.com	
칼 럼 니 스톱	배 수 정	jimjim710@naver.com	
칼 럼 니 스톱	신 솔 원	speedal@hanmail.net	
칼 럼 니 스톱	공 종 구	kong@kunsan.ac.kr	
칼 럼 니 스톱	김 선 순	3585711@naver.com	
칼 럼 니 스톱	김 철 호	www.crabland.com	
자 문 위 원	이 진 우	jay0810@hanmail.net	

공무원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신입 지원 가능설 (military Application) 부문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연속 선정

고급직업교육, 통일전문대학 (고졸특·고졸직업교육지원 장학금) (국립) 사립, 민선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특) 신장대학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 (고졸특) 교육부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특) 신장대학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 (고졸특) 교육부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특) 신장대학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 (고졸특) 교육부
교육부 대학기초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특) 신장대학 (교육부) 평생교육혁신지원사업 (고졸특) 교육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인재

군장대학교

군산시장 후보들 모두 지지율 하락세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러 출마 희망자 진영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표본 500~700명 규모의 여론조사가 벌써부터 희비의 저울로 작용하는 셈이다.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적정 표본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예비 후보들이 지나치게 몰입하기보다는 선거 구도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A언론사가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군산시장 출마 예상자 지지도 조사 결과, 강임준 현 군산시장장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한 수치다.

뒤따르는 2위 그룹의 경우도 4년 전과 비교할 때 인물은 같았으나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처럼 시장 후보군들의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세는 주목할 만하다. 조사 대상 후보가 12명에 달하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지지세를 분산시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군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5.6%가 강임준 시장을 선택했고, 이어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가 10.4%를 얻었다. 3선에 도전하는 강임준 시장이 불과 5.2%p 차이로 앞선 결과다.

4년 전인 2021년 12월 17일 같은 A언론사의 조사에서는 강임준 32.9%, 문택규 20.2%, 서동석 11.5%였다. 이듬해 2월 20일

조사에서는 강임준 29.8%, 문택규 23.9%, 서동석 17.7%였고, 선거를 코앞에 둔 방송사 주관 조사에서는 강임준 39.0%, 문택규 22.5%, 서동석 18.6%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회 의장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9.4%의 지지세를 보였고, 김영일 전 시의회 의장도 7.7%를 기록했다.

반면 도의원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 5.3%, 강태창 의원 5.0%, 문승우 의장은 2.9%에 그쳤다. 군산시의원 출신 나종대 의원이 5.7%의 지지를 얻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지지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이 4.6%를 기록했다.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다.

최관규 변화와혁신포럼 대표는 4.3%, 김재준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은 3.8%를 기록했는데, 내년까지 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내년 지방선거 군산시장 예상 출마자들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전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결과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글 |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2025년 군산시 명장 전기권 회장 ‘44년 창호 외길’, 장인정신 계승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군산시는 지난 9월 11일 ‘2025년 군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중일 전기권 회장에게 명장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했다.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위원장:부시장)은 지난 8월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자격을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전기권 명장을 선정했다.

시는 2021년부터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숙련 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산시 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명장으로 선정된 ㈜중일 전기권 회장은 군산시에서 44년간 창호 제작과 시공 분야에 종사해 오면서 12건의 특허 등록, 11건의 전시회 출품 및 기타 우수 발명품 개발 등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우수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여식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전기권 명장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어 “지역 산업 발전은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온 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명장제도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장심의위원회 한 전문위원 역시 “전기권 명장의 기술이 관내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세기 가까이 창호 외길을 개척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장인정신 계승에 앞장서 온 전기권 명장의 인생을 만나본다.



2025 명장패수여



공장 설비에 대하여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전기권 회장과 가족들



사무실 업무를 상의하는 가족들



설비를 점검하는 아버지와 아들



전기권 회장의 둘째 아들

지독한 배고픔의 설움을 견디며

“진안이 고향이다. 54년생이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 시절엔 대부분 다 그랬다. 특히 배고픔의 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나는 또래들보다 훨씬 밥양이 컸다. 그래서 설움이 더 컸던 것 같다.”

15살 청소년 전기권은 드디어 고향 진안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서울 고모네 집에서 운영한, 공장이라고 할 정도도 아닌 소규모 작업장에서 함석 일을 배워갔다. 지금의 삼선동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우리나라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첫 일을 시작한 후 2년 뒤 봉급 4천 원을 받았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명절 때 고향에 가는 기대와 설렘으로 참고 또 참

고 끝까지 버티며 서울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집이 센 편이었다.” 그 봉급을 모아 모아서 고향 부모님께 드렸다.

군 입대와 의병제대

철공소로 직장을 옮겼다. 지붕 개량일에 손을 댔다. 당시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작업 물량은 많았다. 일당 1,300원 ~1,500원이었다. 춥고 배고프고 몸과 마음이 아팠던 시절, 그는 군에 입대한다. 머리가 너무 아파 쓰러져 정신을 잃고 6일 만에 깨어났다. 뇌수막염 진단이 내려졌고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완치되어 6사단에 배치되었다.

군 생활 역시 춥고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자대 생활하면서 선임자들 역시 그의 편은 아니었다. 결국 의병제대를 한다.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예비군훈련이 면제되고 민방위훈련만 받게 되었다. 이후 사업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인생사 새옹지마를 새삼 느꼈다.”

24살, 군산에서 중일(重一) 창업

제대 후 바로 고향에 가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충북 괴산에 3년 정도 정착했다.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19살 청춘이었다. “배고픔 없이 (잠시 울컥했다.)배만 부르면 못 할 것이 없었다.” 이후 큰 도시인 대전으로 옮겨 비로소 평생의 업이 된 창호 일을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성공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

모진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24살 그는 군산으로 발길을 향했다. 지금의 그의 분신이자 역사가 된 ‘중일(重一)’을 창업했다. 27살에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에도 골인했다.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만들었다. 회사 이름의 뜻을 물어보니 ‘중일, 무거운 중자와 한일자’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 답한다.

LG샷시 대리점을 운영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선택이었다. 처음으로 선보인 하이샤시는 창호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깨지고, 뒤틀리고, 약하다’ 등 일반인들의 인식 외에 경쟁사인 알루미늄 업체의 유언비어 등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계속 홍보한 결과 나중에는 잘돼 하루에도 꽤 많은 계약을 성공시켰다.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가며 사업을 키워나갔다.

제법 자금을 모았다.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조금씩 매입했다. “그때 서울 쪽에 땅을 사놨으면 큰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산은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투기목적이 아니었기에 만족한다.(허허)” 큰 웃음소리에 묻어 나오는 그의 인생의 한 대목이 그려질 듯하다.

탄탄대로는 거기까지였다. LG에서는 총판 하나를 더 개설하여 시장은 이원화가 되었고 그의 업체에서는 타 브랜드사인 한화, 금강, 제철 회사 제품 외에 같은 LG회사와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결국 대리점을 자진 반납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제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만은 결코 없었다. 그의 인생에 포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일의 성장과 부흥!

현재 생산면에 있는 회사는 익산 춘포와 군산 선제리에 공장을 잡았으나 적절하지 않아 1997년도 지금 부지에 전시효과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다른 쪽으로 눈을 팔 거를도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

그의 부지런함과 절실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분야도 점차 다양하게 넓혀가면서 직원들도 늘었다. 그 무렵이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절감의 일환으로 창호 에너지 등급제를 실시했다.

“대기업에서는 브랜드 광고 위주로 창호 사업을 하던 시기였고 누구보다 창호의 취약성을 절감한 나는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 시험성적서를 받는 등 창호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창을 많이 개발했다.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각종 인증서, 특허 관련한 다양한 액자들이 중일의 역사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설업이 부도 발생률이 높아 부실채권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연스레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지고 보수적이 되었다.



그런 태도와 실천이 실패하지 않고 나름 성공한 이유가 됐던 것 같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관련해서 총 5회 지원받아 개발했다. 특허 분쟁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 킨텍스 전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손님 중 한 사람이 중일에서 출품한 제품이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중일에서 먼저 출원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명예 회복과 최강 기술력 인정, 둘 다 잡은 셈이 됐다. 특허받을 때는 침해와 방어를 고려해야 함을 크게 깨달은 계기가 됐다.”





함성수지 고정 미서기 단열복합



알미농 커튼월&미서기 단열복합

특히 2012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슬라이딩 단창(미서기)을 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 시험 의뢰하여 창세트 에너지 1등급 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슬라이딩 단창으로 1등급은 믿을 수 없어 하며 시험체를 해체하여 도면과 시험체를 확인하고 성적서를 발급

했다.

현재 중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사위가 총결집했다. 창호 (설계)제작과 시공 등 각각 한 분야씩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잘나가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하나둘 불러들였다.



단열복합창호(금속제)



라운드 단열 히든 커튼월



미서기 단창 1등급 단열복합

자녀들 모두 회사 근무, 도전과 성취에 경의

“특히 큰아들에게 조언과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대표자, 경영자로서 신중한 행동과 결정을 강조한다. 대표로서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화합을 강조한다. 가족들이 잘해나가고 있어 고맙고 자랑스럽다.” 전 명장은 유달리 화합의 가치와 의미를 말했다. 가족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호흡과 단합력으로 중일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보고 있다.

군산의 명물 중의 하나인 월명산 수시탑 밑 자락엔 오래된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 그곳에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명산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건설사업에 중일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기간동안 창호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의 상징적인 건물의 하나가 될 전망대에 설치할 중일의 창호 제품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5 명장패수여



명장의 도전과 성취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독자와 함께 경의와 박수를 보내드린다.

군산시는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된 전기권 명장을 위해 ▲시 홈페이지 명장 코너 등재 ▲각종 매체 홍보 ▲명장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며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인터넷 바둑을 즐기는 전 명장은 “다른 여가생활이나 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다. 바둑이 유일한 취미이자, 운동인 것 같다.” 그의 표정과 웃음소리엔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자신만이 느끼고 부딪히며, 울고 웃었던 삶의 조각이 엿보이고 묻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굳게 버텨온 인생을 오롯이 담고 있다. 전기권



(株)重一
대표이사 전 현 석
|본사 전북 군산시 성산면 만동2길 170
063-453-9206
|지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8-49
031-235-9207
|홈페이지| <http://중일.crw.kr>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 딸래요”

군산복싱체육관 소속 나연호 선수
전북도민체전 42kg급 우승 (서흥중 1학년)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원손잡이는 희귀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운동 종목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복싱 역시 다르지 않다.

아마추어는 물론이고 프로 세계에서든 이른바 사우스포가 세계 정상에 오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아웃복싱의 전설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실 로마첸코’, 인파이팅의 교과서로 불리는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 그리고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메이웨더의 제자 ‘저본타 데이비스’가 있다. 군산 복싱계에 ‘될 성부른 떡 앞’이 나왔다. 전북권의 학생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한 대회에서 중학교 1학년 나연호 선수가 우승했다.

2년의 나이차를 극복하기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게 복싱계의 정설. 유망주 탄생에 목 말라했던 군산 복싱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중학 1학년 나연호 선수가 전북도민체전 최정상에 오르다

1학년이 3학년을 이기는 건 매우 '이례적'

지난 9월 12일부터 3일간 고창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복싱 42kg급에서 나연호 선수(서흥중 1학년)는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체육관 2관(나운동)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의 성과였다.

나연호 선수가 예선전부터 맞붙은 상대는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2년의 차이는 흔히 '넘사벽'으로 불린다.

그 격차를 극복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니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결과였다.

연호는 단박에 전북권 복싱 유망주로 주목받게 되었다.

처음부터 지도해온 김형욱 관장은 연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외부 선수들과 스파링 기회를 갖기 위해

트레이닝캠프와 전지훈련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유망주나 강자들과 겨뤄야 실전 기량이 한 단계 높아지거든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탄실한 열매로 자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이번 도민체전 이전에도 몇몇 생활체육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쓴맛을 봤다.

그러나 이번엔 학생 복싱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2년의 격차를 이겨냈기에, 연호는 자신감을 얻었다.

"결승전에서 이겼을 때 아주 좋았어요.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죠."

전북권은 물론 전국 학생 복싱계에서 42kg급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연호.

벌써부터 복싱계에서는 "아마도 다른 선수들이 그를 피하기 위해 체급을 달리해 출전하지 않을까"하는 말까지 나온다.

군산 복싱계의 유망주 탄생

사우스포 복서의 추락과 재기, '인생 역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우스포(2015)>는 왼손잡이 복서를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이다.

길거리 아이들을 거둬들여 사고를 치지 않도록 인도하는 멘토 트레이너는 주인공 '위대한 빌리'에게 사우스포로서의 공격과 방어 기술을 전수한다.

패배 이후 방황하던 빌리가 복서 인생을 건 재기전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영화이다.

<사우스포>의 트레이너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캐릭터는 군산체육관을 세워 배고픈 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군산복싱의 대부 고 김완수 관장의 인생과 닮았다.

어려웠던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월명동 군산체육관 1관은 군산 복싱인들에게 '성지'와 다름없었다.

오늘날 이 체육관은 복싱을 통한 역경 극복의 현장으로, '감성관광지'로 육성하자는 시의회 제안이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체육관에서 운동 3년 차를 맞은 중학교 1학년 나연호 선수가 3학년들을 꺾고 우승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터졌다.

복싱계는 군산의 유망주 탄생을 반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우승(김형욱 관장과 함께)



전북도민체전 결승전 승리의 순간



시상식에서 나연호 선수



아버지(나승환)의 손을 잡고 복싱에 입문한 연호



나연호 선수 가족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복싱'이 좋아요

연호는 당초초 4학년 때 부모님(나승환·박선영)의 권유로 복싱을 시작했다.

“처음 체육관 문을 두드릴 때는 정말 ‘애기’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졌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 자세를 잡으며 기본기를 연습하거든요. 특히 체력을 길러주고 스텝·푸트워크·반사신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줄넘기를 아주 잘 합니다.”

김형욱 관장은 체육관 학생들 모두 열심히 하지만, 연호는 특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연호의 줄넘기 기량은 또래에서 전국 수준에 해당할 정도이다. 가로뛰기는 물론 3단 뛰기도 능숙하다. 이는 체육관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특히 바닥에서 높이 뛰며 줄을 엑스자로 교차시키고 2단, 3단으로 도약하는 시연을 할 때면 마치 ‘신들린’ 듯하다.

연호는 할수록 복싱이 좋아졌다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니까 나날이 체력이 붙는 걸 느꼈어요. 재미도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죠.”

복싱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게 많다는 게 연호의 생각이다.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경기라서 좋아요.”라며, 오늘도 체육관에서 뛰고 날며 땀을 흘린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꿈 꾀다.

“복싱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장래의 꿈과 연결 지어 어른스럽게 말했다.

오늘도 연호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왔다. 줄넘기로 몸을 풀고, 자세 잡기·원투 스트레이트 같은 기본기를 반복한다.

연호의 주무기는 ‘카운터’다.

상대가 펀치를 날릴 때 순간을 파고들어 손을 내미는 기술이다.

눈이 빨라야 하고, 마음도 담대해야 실전에서 쓸 수 있다.

“작년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어서 카운터를 쳐야 하는데 자꾸 뒤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호된 경험도 했죠. 그런데 올해 중학생이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지훈련 가서 스팅링도 많이 했는데, 기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김형욱 관장은 “연호는 이제 ‘될 성부른 떡잎’이 되었다”라며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복싱은 꾸준함이 결과를 가져다주는 운동이거든요. 지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정진한다면 국가대표의 꿈이 머지않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줄넘기로 펄펄 날아다니는 연호



군산복싱체육관 1관(나운동)의 모습



군산복싱체육관에 나와 기본기 훈련하는 연호



체육관에서 연습 스팅 중인 중학생 관원들



나연호 선수의 기본 자세



군산복싱체육관에서 훈련 중인 연호와 관원들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성장하길

연호의 각오도 새롭다. 국가대표는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학교생활도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족했던 공부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기본기가 복싱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관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운동에 매진할 거예요.”

군산복싱체육관에서 함께하는 형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연호.

“부모님께 딱히 할 말은 없어요.”라고 했지만, 이내 “복싱 국가대표라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빠, 엄마께 감사드려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연호 학생이 지금처럼 ‘처음의 자세’로 기량을 연마해 군산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싱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복싱에 관심있으신분들은, '군산복싱체육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군산체육관 1관) 군산시 월명안길 8.(동신교회 옆)

군산체육관 2관) 군산시 하신3길35

|문의| 김형욱 관장) 010-5608-7721

근대미술관 초대전 '아름다운 인연3' 松石 陳順和

‘서여기인(書如其人)-글씨는 그것을 쓴 사람과 같다.’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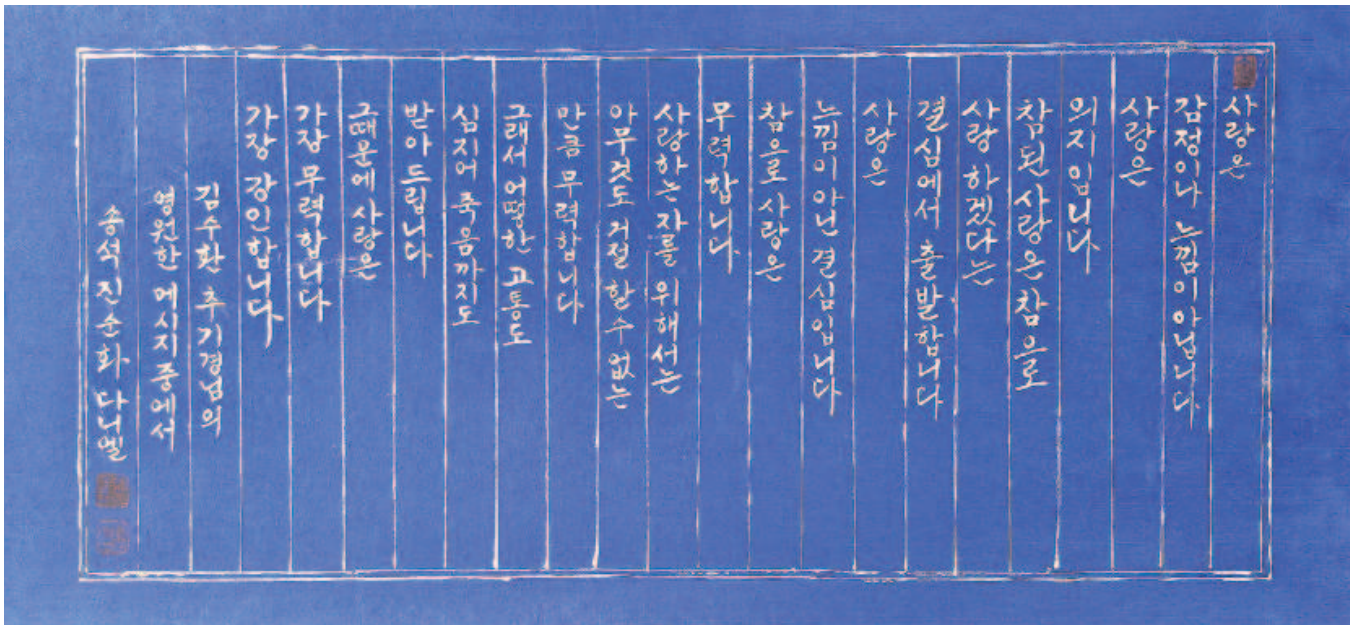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松石 진순화 작가 초대전『아름다운 인연 3』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다양한 서화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작가의 예술적 성취를 한껏 감상할 수 있는 작품 30여 점이 출품된다.

6폭 병풍, 전통 문틀, 족자 등 고전적이고 친근한 일상 속의 소재에 한글, 한자, 문인화작업을 통해 한국 서화 예술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확장성을 감상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전시회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시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작가의 전시를 지면으로 먼저 만나본다.



인연 2025



김수환-추기경님의 글 2025

감사합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김종규 박물관장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저 개인 적으로도 큰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김 관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야지요.”
빼놓지 않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송석 선생의 화실이자 ‘국제서화연구원인 여묵헌’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나눴다. “서예는 마음을 가다듬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작업과 관련된 책과 다양한 방면의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내 작업의 밑바탕엔 늘 독서를 통한 학습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있다. 생활 속 습관이자 나만의 공부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얼마 전부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순금(純金)을 이용한 작품까지, 전통과 현대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만의 신선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월월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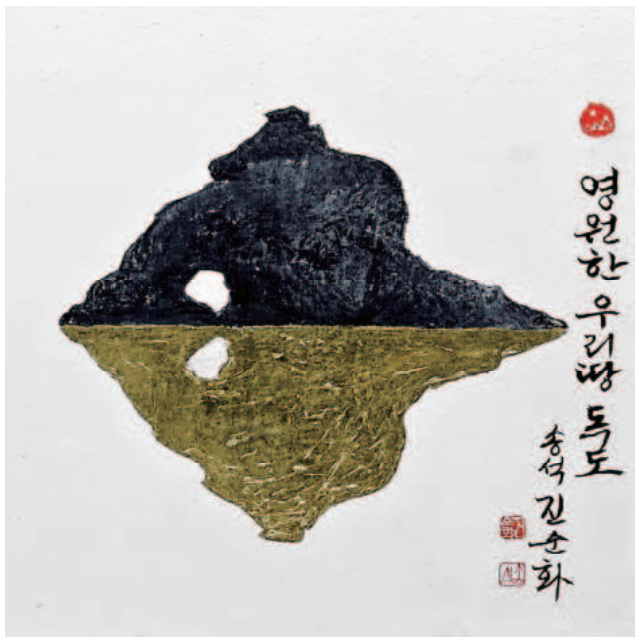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것을 쓴 사람과 같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예서(隸書) 천자문’, ‘마태복음’, ‘월’ 등 문자와 서체와 표현의 경계를 무위자연(無爲自然)처럼 넘나들며 진정 예술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것을 쓴 사람과 같다.’ 작품을 이번 전시회의 주제 작품으로 꼽는다. 평소 선생의 말씀이 작품으로 다가왔다.

“신영복 선생의 글과 뜻을 생각하며 모질게 쓴 글이다. 예술과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행복한 기회였다.” 우리 사회의 한 시대를 통찰한巨人의 삶과 서예 작가가 만나는 멋지고 큰 울림을 느낄 것 같다.



예수님상 2025



독도 2025

작가는 ‘생활 속의 서예’를 바라고 실천한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예를 사랑하는 동호인을 양성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주변에 서예를 즐기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러면서 작품도 하고 있다.”



홍매화 2014 부분2

다시 초심으로

“서예 입문 후 군산과 서울, 전주 등을 오가며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을 찾아가 공부에 전념했다. 특히 한국 문민화의 대가인 창현 박종희 선생님을 잇을 수가 없다. 원칙과 기본에 뿌리를 두고 충실히 배우는 동안 내 자신만의 글씨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결국 예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오

랫동안 글씨를 써온 작가의 모습이 빗소리를 뚫고 공명이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1845년도에 태어난 해방둥이다. 개성에서 태어난 직후 서울로 와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64년에 가까운 친척이 큰 사업을 하는 중 일손을 조금 보태기 위해 왔다가, 그대로 군산 시민이 돼버렸다. 제2의 고향인 셈이다. 군산에서 일갑자(一甲子)를 보내냈다.

그는 현재 ‘국제서화연구원 여목회’ 회장으로 나포길빛공동체, 군산문화원 서예반 등에 재능기부를 하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군산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주 초남이성지 요셉성당, 완주 천호 카톨릭성박물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그린스버그 사랑의 씨앗 수녀회 모원,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다.



여서천자문



송석선생

박물관 관계자는 “송석 진순화 작가의 서화 작품 속에서 관람객들이 자기의 삶과, 그리고 예술을 통한 진선미(眞善美)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스며들길 바랍니다.”며 “극한의 일상을 넘기고 풍요로운 계절에 전통과 새로움이 만나는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 기관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우수한 미술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음악과 인문학으로 기억을 잇다 이음예술문화원 이영미 원장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관카페 '정담'에서 군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이사장/최연길 노블한방병원장) 산하 이음피아노연주자협회가 주관하고, 이영미 원장이 직접 기획한 <광복 80주년 기념 피아노 토크 콘서트>는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군산이 지닌 근대사의 상처와 기억을 예술로 되새기며 음악과 인문학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영미 원장은 이번 공연의 주제를 “어둠에서 빛으로”로 정하고 광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억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역사적 순간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무대가 그 여정을 음악으로 기억하고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부연했다.

포스터에 담긴 기억의 상징

공연 포스터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사(津寬寺) 태극기가 담겼다. 2009년 대웅전 수리 중 발견된 이 태극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은밀히 숨겨 두었던 유물이다. 사회자 김정배 교수는 이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하며 군산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빛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포

터에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이 구절은 공연의 주제를 압축한 상징적 메시지였다. 이 문구는 최연길 이 사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광복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로서 이를 예술로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포스터 또한 공연의 일부가 되도록 기획했다.



언론의 관심과 공연의 의미

이번 공연은 열리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8월 13일 KBS ‘투데이전북’ 방송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으로 소개된 가운데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 지역 시청자들에게도 기념비적인 연주회로 평가받았으며 공연 시작 전부터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무게를 지닌 무대로 이목을 끌었다.

역사와 예술을 잇는 안내자

공연의 사회는 원광대학교 김정배 교수가 맡았다. 그는 단순

한 곡 해설을 넘어 군산의 역사와 지리적 맥락을 음악과 연결하며 풀어냈다. 군산이 항구도시이자 곡창지대였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아픔을 겪으며 식민지 경제의 전초기지였음을 짚었고, 이번 무대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곡목 사이사이에 역사 퀴즈를 던져 관객과 소통했다. 객석에서는 손을 들고 답하며 웃음과 공감을 나누었고, 공연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참여형 인문학 콘서트로 확장되었다.





제1막 — 서막을 열다

연주: 정다은 & 공소연

Maksim 〈Croatian Rhapsody〉 / Fauré 〈Pavane〉

제2막 — 민족의 선율로 공감하다

연주: 조수민 & 박효진

이지수 〈Arirang Rhapsody〉

제3막 — 바람과 개여울

연주: 한용호(대금) & 이영미(피아노)

강성오 〈바람을 그리다〉 / 이희목 〈개여울〉(김소월 시)



연주자들은 각자의 해석을 통해 광복이라는 주제를 음악에 담아냈다.

아리랑 선율이 지닌 민족적 울림, 대금과 피아노의 협연이 전하는 깊은 공명, 민속적 리듬 속에 깃든 해방의 열정은 청중에게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제4막 — 슬라브의 열정

연주: 원신제 & 이다현

Dvořák 〈Slavonic Dances Op.72 No.1 & No.2〉

제5막 — 북유럽의 행진

연주: 한주연 & 최수미

Grieg 〈Norwegian Dances Op.35〉, 〈Allegro moderato alla Marcia, G major〉



광복80주년기념 피아노 토크콘서트



성황리의 객석



이음피아노협회 회원들

세관카페 정담의 객석은 90분 동안 숨죽이며 물
입했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이어졌다.
역사 퀴즈에는 웃음과 답이 오갔으며 공연이 끝난
뒤 단체 사진 속 환한 미소는 연주자와 사회자, 관
객이 함께 만들어낸 무대였음을 보여주었다.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모두 이음예술문화원 산
하 이음피아노협회 소속으로, 협회는 단순한 무대
활동을 넘어 연구와 학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연주 공동체로서 오는 10월 18일 예술의전당 정

기연주회를 준비 중에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피아노 토크 콘서트〉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처럼 과거의 기억을
밝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대였다.
군산의 역사, 연주자의 헌신, 사회자의 해설, 관객
의 공감의 함께 어우러진 이번 시간은, 예술이 기
억을 잇는 가장 따뜻한 방식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반향을 불렀다.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 (<https://eumart.or.kr/>)

대표 : 이영미

대표전화 : 010-6371-717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 4길 7-5 2층



엄마 손맛 '반이랑 찬이랑' 김수정 대표

치열한 업종 경쟁, 어려움 현실
좋아하는 요리로 음식 나눔 보람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셋별 보고 출근, 저녁별 보며 퇴근’

“저와 남편 그리고 배달 직원 1명, 설거지 1명, 주방에서 2명, 보조 1명 총 7명이 열심히 땀 흘리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입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반이랑 찬이랑’ 김수정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직원들을 소개한다.

매주 일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매일 반찬 만들기 전투를 벌인다고 말한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일 것이다.

하루 전날 미리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한다. 다음 날 새벽에 신선한 재료를 세척하고, 다듬고, 삶고, 끓이고...

“한겨울에도 땀으로 목욕해요. 한 공간에서 몇 시간씩 반찬을 만들다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와 직원들은 새벽 4시 30분까지 업장에 도착해야만 제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개인마다 시차가 있겠지만 김 대표는 보통 새벽 3시에 기상해서 일과를 준비한다.

셋별을 보며 출근하고 저녁별 보고 퇴근한다.

“아침 식사 반찬 배달은 오전 9시에 출발한다. 배달만 전담하는 남자 직원과 저와 남편도 배달하는 데 구역이 달라요. 남직원은 주로 나운동, 미룡동, 소룡동을 돌고 남편은 조촌동, 경암동, 내흥동 등 가게 주변 지역을, 저는 사정동, 회현, 옥산, 개정 등 외곽지역을 맡고 있지요.”

“한번 나갈 때 150여 개 정도 돼요. 전체 7~80%가 거의 고정 고객들입니다.”
김 대표와 직원들은 반찬을 배달하고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 30분 동안 번개처럼 점심을 해결한다.
저녁 배달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배달가는 김수정 대표



반이랑 찬이랑 가게 앞

‘다양한 입맛, 물가 인상 고비용-그래도 고객을 위해’

조리에 들어가는 식자재의 신선도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식 만들기 전 과정에 철저히 신경 쓰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김수정 대표.

“가게가 40여 평 정도 돼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음식 만드는 곳이라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재료나 음식물을 버리거나 폐기처리 하

죠. 피해가 엄청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김 대표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정해진 비용 (현재 1인당 5천 원 정도)에 가격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고객마다 선호하는 입맛도 더 다양해지고 갈수록 요구하는 것도 많아져요.” 업계의 사정에 대해 말문을 연다.



“군산에 반찬 배달업체가 5~60개 정도 있어요.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폐업도 자주 하고 또 창업도 이어지고. 대략 그 정도 업체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업체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 체인점은 평균 7천 원 선에서 배달돼요. 우리하곤 차이가 많죠.”

“우리는 자영업자나 가게에서 혼자 장사하시는 4~50대 고객들이 많아요. 이분들 중심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어요. 기본 반찬 구성(국, 나물, 조림, 볶음, 전, 김치)이 제일 어려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세끼 모두 달라요. 젊은

계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할 때마다 늘 이해를 구하고 적절하게 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더 노력해야죠!”

“그래도 우리 가게를 오랫동안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처음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찾아주는 고객(김 대표는 군산양조공사를 꼽았다.)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고객만 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김 대표가 고객들께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는다.

‘새로운 도전, 안 아프고 오래 가고 싶어’

김 대표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엔 더욱더 심각하다. 고물가시대, 직원들 인건비에 배달 차량도 3대나 운행하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추석 명절 후에 500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요. 전체 고객의 20% 정도 빠져나갈 걸 예상해요. 그래도 조심스레 해봐야죠.” 김 대표의 새로운 도전이다.

김 대표는 반찬가게를 하기 전에 나운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근처에서 정육점을 10여 년 정도 운영했다. 동네 고깃집처럼 소규모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점차 대형화되는 전문 정육점이나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오픈하면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규모로 장사하다 보니 늘 힘들고 뒤흔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친한 언니의 소개로 늦게 시작했지만 반찬가게가 제 천직인 것 같아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퇴근 후 밥집을 자주 가요. 고객들이 찾는 맛있는 반찬을 만나서 먹어보고, 우리 가게에 필요한 점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계속하고 싶어요. 또 그게 저의 낙이라고 생각해요.”

“작업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족처럼 지내요.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 앞으로도 서로 안 아프고 오래오래 반찬 만들고 싶어요, 맛있는 반찬으로 고객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장사하며 돈을 버는 사업주보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을 들여 만들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한 끼의 식사를 보시는 진짜 ‘엄마의 손맛’으로 살아가는 정겨운 사람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진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둘러 배달차에 반찬을 싣고 고고씽 달려가는 김 대표의 표정에서 열정과 땀방울이 전해졌다. 김수정 대표 파이팅!



‘엄마 손맛 반이랑 찬이랑’
주소 | 군산시 검다메 2길 15
문의 | 063-465-5714
010-2407-5042
010-5135-5001
신협 : 132-033-007872(김수정)



군산회관 북페어 홍보(이준재 사진 작가 제공)

감성 도시 군산, 북페어로 들썩이다.

군산시와 군산책문화발전소가 쏘아 올린 군산북페어

글 I 박세원
hamp38@hanmail.net

“우리 동네에 이런 북페어가 열린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사주고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네요.”

8월의 끝자락, 여전히 이어지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북페어 열기로 군산이 들썩거린다. 소도시 군산에서 열린 ‘군산북페어’는 약국, 마트, 옷 가게, 빵집이 들어서 있는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 군산북페어가 열리는 군산회관을 찾았다. 매일 다니던 우리 동네 골목에서 이러한 큰잔치가 열린다니, 많은 기대와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김종업 건축가의 유작 군산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개막식이 열리는 첫날, 지하도 전시실을 지나서 행사장으로 가는 입구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로변 옛 계단을 허물고 걸어서 군산회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지하 통로에는 벌써 입장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엄마도, 흰 칠한 키의 학생들도, 중년의 어르신들도 경중경중 경쾌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군산북페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8. 30.~8. 31.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공유와 나눔, 보살핌, 출판’을 슬로건으로

군산북페어의 슬로건은 SHARING, CARING, PUBLISHING(공유와 나눔, 보살핌, 출판)이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누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너른홀에 들어서자, 출판사와 서점,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꽉 찬 공간에 압도되었다. 신간 도서에서 나는 종이책의 냄새와 많은 사람들의 북적이는 소리로 바깥 33도를 넘어가는 열기만큼 그 분위기는 뜨거웠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디로 먼저 향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몰려든 인파에 떠밀려 군중 속 책방으로 빨려 들어갔다. 책을 진심으로 대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았더니,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다.

무엇이 이들을 남쪽 소도시 군산까지 달려오게 했을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군산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젊은이들의 운집은 소란하면서도 질서가 있고 생기가 돌았다.

군산북페어는 지난해에 이어 참가 부스 모집에 570여 팀이 신청하여 그중 121개 부스를 운영했다니 치열한 경쟁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부스 운영을 선정할 때는 먼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특별한 국내외의 출판사와 서점, 작가, 개인 제작사,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을 (국내 116개, 해외 5개) 선정했다.

-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형식의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책 박람회
는 전국의 책 창작자, 출판사, 동네 책방, 시민이 직접 교류하는 ‘책문화한마당’이다.

- 특별대담(김애란 작가x신형철 평론가), 주제토크, 낭독회, 전시 연계토크는

북토크, 작가 강연, 포럼, 세미나,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 아트북 및 북디자인, 인쇄기(리소) 전시, 문학동네 팝업서점은 새로운 형식의 도

서를 전시·판매하는 ‘책박람회’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었다.



군산북페어 개막식(강임준 시장,의회 의장, 출판사, 서점 대표와 함께)



동네 병원 아픈 서점의 작가들



독일에서 왔다는 애서가



군산북페어 (이준재작가 사진제공)

특히, 운영위는 "올해는 단순한 책 거래를 넘어 출판인과 독자의 만남, 네트워킹, 출판문화의 '공유와 나눔'을 실현하는 새로운 북페어 문화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전시장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부스마다 각기 개성이 연출되고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출판사를 선택하고, 작가를 직접 만나 자신의 관심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인다.

책 표지의 디자인도 개성에 따라 눈길을 끈다. 군산 여고 출신이라는 부스 주인은 이를 계기로 고향에 올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스 사이를 이동하던 중 『진짜 공간-군산 골목길 탐사 여행』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작가를 만나 보니 그는 군산과 연고가 없지만 몇 번의 여행을 다니며 군산 골목을 촬영하고 책을 썼다고 한다. 군산 사람으로 반가운 생각에 얼른 책값을 지불했다.

각 부스의 출판사와 서점 주인들은 책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흥정을 하고 있었다. 책과 눈을 맞추고 그들을 만지며 책 속으로

빠져든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군산북페어에 참석한다는 서울 경복궁 근처 서점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군산 시민들을 보니 책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고, 책을 고르는 태도가 진지해서 놀랐습니다.”

“음악도 좋고, 공간 배치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책도 많이 팔려서 만족합니다.”

메인 전시인 '아트 북 페어 나우-북페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독립·예술 출판의 중심인 아트북페어의 다양한 미학적 분위기가 대단했다. 기대되는 코너로 특별대담은 지난해 한국 문학계의 거장 황석영 작가의 뒤를 이을 주인공들이었다. 소설가 김애란과 평론가 신형철의 대담은 신인 작가 지망생들의 열기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특히, 신예 중견디자이너 신혜옥·신동혁·신덕호의 작업을 선보이는 '메이드 인 신·신·신' 전시는 많은 독자들이 몰려 그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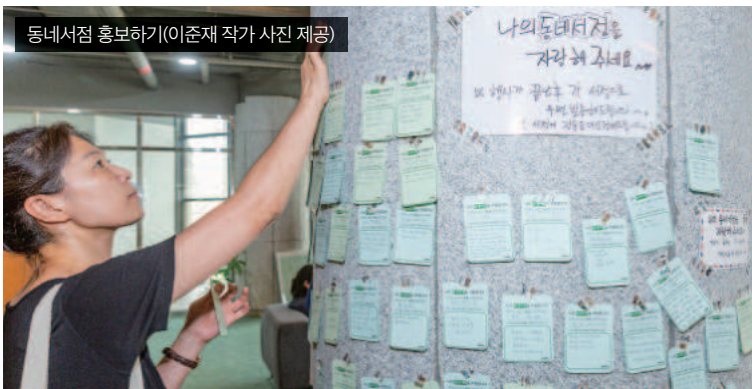
개성있는 판매 부스(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군산을 지켜 온 서점들



이색적인 코너들(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동네서점 홍보하기(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독자를 만난 작가의 진지한 표정(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일본인 서점(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노랑복스의 아이들(이준재 작가 사진 제공)

군산문인협회 작가들과



작가와 독자들의 감성 공유



작가와와의 만남



해외에서 온 서점들과 군산빌리지

독특한 출판사와 서점들이 눈에 띄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서점으로 언어의 장벽도 무색하게 많은 독자들이 스쳐갔다. 특히, 본인이 쿼어,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관련 도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3층 자리한 군산빌리지를 찾았다. 다소 협소해 보이는 공간, 찾아가기 어려운 3층에 배치한 군산빌리지는 17팀(16개 부스)로 진행되고 있었다. 장소 선정으로 다소 만족하기 어려운 위치라 생각한 것과 달리, 군산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군산문인협회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들이 직접 시집을 전시하고 있어 저서에 대한 소회를 들으며 시집 몇 권을 가방에 담았다. 군산의 대표 서점 ‘한길문고’와 근대사 거리의 ‘마리서사’, 군산에서 가장 작은 서점 ‘봄날의 산책’ 대표에게 판매량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더니 환한 눈웃음으로 화답한다.

내려오는 길에 이색 코너인 ‘노랑복스’에 들어갔다. 세계의 노란색 책들이 진열된 서점에는 마침 아이들이 책을 골라 읽고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도 어른들도 환한 색채의 매력에 사로잡힌다. 긍정과 환희의 색채인 ‘노랑’은 군산북페어의 정체성에 담아 방문객과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단 이틀간 열린 군산북페어는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남지만,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 그 열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 열

기만큼 북페어를 계기로 군산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을 방문하고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한국관광공사는 군산시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2025년 전라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로도 지목했다. 이는 군산이 단순한 관광지에서 벗어나, 감성과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책을 세 권 이상 구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에코백을 메고 행사장을 나가는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군산북페어’는 군산시와 ‘군산책문화발전소’라는 지역 서점들의 능동적인 제안으로 군산만의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쏘아 올린 책잔치, ‘군산북페어’는 이제 작가와 독자, 출판사가 함께 책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 금강, 만경강, 서해로 나아가는 물결이 되어 흘러가기를 기대해 본다.

르네상스 미술 - 4.스페인 르네상스

B.C.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5~16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적 가치에 중심을 뒀던 특별한 영감들은 스페인의 상황에 맞춰 미술과 문학, 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는 스페인은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던 시기였으며, 스페인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로 가까워졌던 르네상스가 스페인으로 들어가며 다시 '종교적 중심성'을 갖게 되었다.

성화, 성인, 순교 장면과 같은 종교화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스페인 특유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이러한 화화는 감상을 넘어 포교와 교육에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8월호에 소개된 '플랑드르 화풍'의 영향이다.

이는 북유럽에서 꽃을 피운 기법으로써 사실적 묘사가 강화된 화법이며, 섬세한 세부 표현과 강한 명암 대비를 선호함과 동시에 금박등 장식적 요소도 많이 사용되었다.

스페인 르네상스에 갑자기 플랑드르 화풍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는 역사적으로 당시 스페인이 네덜란드의 남쪽 플랑드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화적 희석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탯줄처럼 이어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영향'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보여준 원근법, 인체 해부학적 표현, 균형 잡힌 구도 등을 적극 수용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미술의 전반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은, 화려함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에 더 집중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종교적 중심성', '플랑드르 화풍'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영향'의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하는 스페인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미술가는 엘 그레코(EI Greco), 루이스 데 모랄레스(Luis

de Morales), 후안 데 후아네스(Juan de Juanes) 화가이다.

'엘 그레코(EI Greco)' 그의 본명은 '도메니코스'이다. 크레타 출신이지만 스페인 '톨레도'에서 활동하며 대표적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독특한 양식을 개척한 화가이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1588. 캔버스에 유화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은 엘 그레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하단에 죽음을 맞이한 백작을 두고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어진 세계를 하나의 화폭에 연출하여 신비적 세계를 시각화 하였다. 길게 왜곡된 인체와 빛과 어두움의 극적 대비를 통해 신비적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루이스 데 모랄레스(Luis de Morales)'이다. 그는 '종교화, 신비주의 화가'라 불린다. 대부분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주제로 삼는다.

이 성인들의 고결함과 경건 그리고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모의 신성과 동시에 인간적 모성애의 부분도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 모랄레스의 색채감은 무거우면서도 신비감을 강조하며, 모두 강렬한 감정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피에타. 1560. 캔버스에 유화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의 자기화생적 인류애를 극적으로 표현 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적극적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안 데 후아네스(Juan de Juanes)' 이다. '스페인의 라파엘로'라고 불린다. 후아네스 역시 거의 모든 작품이 카톨릭 신앙과 관련된 성화를 주제로 그리고 있다. 스페인의 반 종교개혁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학과 진지한 교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라파엘로의 영향을 받은 점으로는 부드러운 얼굴과 조화로운 구

도에 비하여 해부학적 구조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나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듯 따뜻한 색채는 온화함을 느끼게 한다.



최후의 만찬. 1560. 캔버스에 유화

후아네스의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하면서도 스페인의 종교적 경건함을 강화시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른점은 화면 중앙에는 '성체 성사'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 하였다는 점이다. 화면 역시 라파엘로의 화풍이 느껴진다.

이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자면 미술의 역사는 신들의 세계(그리스/로마 신화, 카톨릭, 기독교) 중심에서 다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신의 세계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오는 회전의 연속성을 띤다.

초기 미술의 시기는 이러한 흐름이 공간적으로 거대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화가 다변하며 복잡해짐에 따라서 '스페인의 르네상스'와 같이 국소적으로 지역적 특징에서 발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윤회하듯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복유립 사실주의 표현과 이탈리아 플랑드르 기법의 융합은 스페인의 르네상스 미술을 통과 하면서 바로크(17세기)의 강렬한 현실주의(벨라스케스, 수르바란, 무리요)로 발전하는 기초석이 된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법!

안희경. 『인간 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 김영사, 2025.



나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근대소설을 전공한 인문학자이다. 40여 년을 인문학자로서 살아온 나는 인문주의자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인문주의의 핵심 고갱이는 무엇일까? 비판과 저항의 정신, 그리고 타자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정신의 핵심 고갱이를 이 세 가지로 압축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세 가지의 인문정신에 얼마나 투철한 삶을 지향하고 실천해왔는가? 자문해본다. 이 세 가지 정신 가운데 비판과 저항의 정신, 특히 저항의 정신에 맞닥뜨리면 나는 그냥 부끄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생래적으로 소심한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집단 행동이나 집단주의 정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방어막을 내세워 사회의 부조리나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서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나 발언을 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저항의 정신에 관한 한, 기껏 그리고 고작해야 ‘절

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하면서 종당에는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꾸’(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는 일만 반복해온 나는 모래와 바람과 먼지와 풀만큼 작은 존재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항상 뒷전에서 때늦은 분노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유나 냉소로 일관하는 냉소주의자의 삶을 살아왔던 나는 그래도 ‘타자의 상상력’에 관한 한 인문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타자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타자를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어려운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감수성이나 태도이다. 사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일은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저마다 하나의 독자적인 우주를 지닌 개인들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게 우리의 윤리이다.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 또한 바로 그 윤리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타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설가로서 끝내 실패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소설가로서 남을 수 있을 것이다.”(『작가세계』 2007년 여름호)라는 김연수의 진술은 경청할 만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타자의 상상력의 또 다른 측면은 타자의 슬픔이나 아픔을 기꺼이 자기화하려는 ‘공감의 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이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자도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과 가해자 의식보다는 피해자 의식에 더 민감한 구성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와 연동되어 악플이나 악성 댓글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의 배출구로 투사하는 구성원들도 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알고리즘 편향이나 확증 편향 오류 또는 가짜 뉴스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이나 오염으로 인해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문학 종언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공통감각’(common sense)의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안희경의 『인간 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인간 차별이라는 제목에서부터 그 문제의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책에서 ‘차별’은 키워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안희경은 2002년 31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백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중의 소수자 정체성을 겪으면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 주변부적 타자로서 곱다시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실존의 주름과 그들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이러한 책의 출판으로 결실을 맺게 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만나 많은 이주민들, 특히 이주 결혼 여성들이 겪었던, 아니 겪어야만 했던 온갖 차별과 배제의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을 압축·요약하고 있는 머리말에서 그는 ‘그들 삶의 이야기로 차별의 겹을 실타래 풀 듯 헤쳐 보이고자 에세이라는 장르를 택했다. 독자인 당신의 마음 속에 있을 초라함의 기억, 이방인의 시간과 연결되고자 내 이야기까지 길어 서술했다면서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당신의 공간이 안녕하도록 통념을 변화시키고자 몰입한 작업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무심결에 ‘나도 그렇지!’라는 탄성이 새어 나오는 순간으로 통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우리는 모두 ‘다름’을 안고 살아간다’(9면)는 진술로 마무리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추론을 싫어하며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주화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도 뇌의 그러한 속성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지닌 독자적인 개별성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유전자의 핵심 동인인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정이 그러하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 말고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젊음도 건강도 모두 한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노화나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리고 결코 원치 않은 각종 재해나 사건 또는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젠더나 외모, 국적이나 인종, 나이나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어 온갖 차별이나 혐오 또는 배제나 폭력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러한 타자화의 표지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표지는 관계적이고 상대적이며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날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을의 위치로 전락하여 차별과 혐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누구나 다름을 안고 살아간다. 그 다름이 초라함의 길목이 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두루 스며들길..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결코 위험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129면)“우리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들이치는 차별에 예민해지고 난처한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누군가의 난처함에는 내가 겪을 곤란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외면은 나의 어느 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재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 편 가르기 본성을 방치하기엔 우리의 안전이 위태롭다. 누구나의 안전 속에 나의 안전이 있고, 개인의 삶이 모인 합이 오늘의 세계다.”(180-181면)

순망치한(肅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그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이웃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법이다. 2000년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마지막 처연한 장면(비행기 사고로 무인도로 표류해온 주인공은 비행기 화물이었다던 배구공에 얼굴을 그린 후 월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 이후 유일한 절친으로 생활하던 중 함께 뗏목을 타고 가다 바다에 빠져 멀어져가는 월슨을 목놓아 부르던 처연한 장면, 전치형, 『한겨레』, 2024.5.31. 참조)이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외딴 섬에서 홀로 외로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 비인간 생명체를 포함한 타자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쥐도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면 이판사판 고양이를 무는 법. 현재 우리 사회의 권력 위계와 서열의 사다리에서 맨 아래에 위치한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유럽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주민들의 테러나 폭동을 ‘강 건너 불 보듯’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세 혈관이 건강하지 않고서 대동맥이 결코 건강할 수는 없는 법. 모세혈관의 건강을 방치한 이후 대동맥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불가진 사건 속에서 일상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애쓰지만, 그보다 더 균일하게 일상을 버텨내는 바탕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 속에서 사고는 사건으로 건널 만해지고, 사건은 세상살이 속 ‘그러려니 하는 일상’으로 잠잠해지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도 이제 관계를 보살피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산다”(209-212면)는 저자의 당부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인익기익(人溺己溺), 손님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의지야말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커피 문화가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직영점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도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나라마다 교유한 마실 거리 문화가 카페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다.

앨런 쿠페츠 교수(미국 롤린스 대학 크라머 경영대학원)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커피 문화는 독특하다.

한국인에게 가정은 가족이 머무르는 곳이고,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커피전문점이 집과 직장의 스트레스에서 해방 시켜주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고, 커피가 가지는 의미 역시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를 창업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카페 창업을 계획하면서 주관적 견해에 치우쳐 객관적 냉철함이 결여된 이들이 많다.

카페를 창업하려는 이들은 다양하다.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과 직장을 관두고 본격적인 창업인의 길로 들어서려는 이들, 동업으로 자신의 로망을 이루려는 젊은이들까지 카페 창업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뜨거운 이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식당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카페를 차려 돈을 버는 것이 사회적 인식상 향상된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하지만 카페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 때,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카페를 오픈 한다는 것은 망하겠다는 말과 진배 없다.

똑 같은 맛. 똑 같은 서비스로 창업을 계획한다면 고객이 일부러 당신의 카페를 찾아 갈 이유가 없다.

카페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업그레이드 된 문화를 대변하면서 외국에서 자신의 카페를 벤치마킹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페를 창업하려는 이들에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카페의 외관 뿐 아니라 손님의 동선에 맞춰 편의성을 배려한 참신함을 더하라는 것이다.

가령 화장실에 여성들이 옷을 걸어두고, 백을 걸어둘 수 있도록 넓은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눈으로 보이는 실내 장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상을 해보고 카페를 꾸며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선진국을 대표하는 카페 문화는 결여 돼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 했듯 카페도 그 수준에 걸맞은 품격을 지녀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에서 역으로 카페 문화를 수입 할 정도의 신선한 감각과 발상으로 고객의 만족이 극대화 된 멋진 카페가 등장해야 할 시기다.

스타벅스의 성공사례를 보라.

앞서가는 카페 문화를 선도해 맛과 서비스는 기본, 편리성은 당연하며 고객 감동을 주는 그들의 행보는 카페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고사성어 중 인익기익(人溺己溺)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물에 빠지면 자기(自己)로 인해 물에 빠진 것처럼 생각한 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다.

손님의 불편이 무엇일까. 항상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역시 이 시대의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백일 동안의 마중



이런 식물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생긴다. 큰 바위의 오목한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 아주 좁은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난 꽃들. 자주 만나는 풍경이지만 늘 기특하고 대견해 멈춰 서서 말을 건다.

“애썼구나. 이 좁은 틈에서, 친구도 없이 홀로.”

그렇게 말을 건네고는 사진에 담아, 더 오래 기억하려 한다. 오 늘은 그런 식물을 눈여겨봐 준 또 한 사람을 떠올린다. 어느 꽃집 앞, 좁은 틈에서 피어난 붉은 꽃. 가까이 보니 백일홍이었다. 꽃이 핀 자리가 위태해보였다. 주인이 드나드는 출입문 바로 앞. 문을 활짝 열면 문에 치어 몇 번이고 꺾였을 자리였다. 그런데도 괜찮 다는 듯, 백일홍은 홀로 당당히 서 있었다. 내가 사진을 찍고 있으 니 꽃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환한 얼굴로 예쁘죠? 말을 건다.

“네, 그런데 이 백일홍이 있어 문 열고 닫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 어요?”

그러자 주인은 직접 문을 열어 보였다. 문을 활짝 열면 꽃대가 닿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열지 않았죠. 문을 열 때마다 조심조심, 딱 이 만큼만 열었어요.”

주인은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큼만 열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 이 꽃 아래쪽 꽃대궁 좀 보세요. 많이 굽어졌죠?”

그가 가리킨 곳은 백일홍이 대리석 좁은 틈을 벗어나 뻗어 나온

꽃대 부분이었다. 좁은 틈에서는 더 이상 줄기를 키울 수 없으니,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숨을 트듯 줄기를 확장했을 것이다.

‘꽃집 주인이니 당연히 꽃을 귀히 여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 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꽃집에서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상황 이 한두 번이었을까. 매주 서울 도매시장에서 사온 꽃을 들여놓 을 때는 문을 크게 열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무심코 발길에 채 일 위기도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당당했다. 그것은 주인만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라, 이곳 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덕분이기도 했을 것이 다.

백일 동안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백일홍. 백일 동안 사람들 은 이 꽃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기도하듯, 마음을 기 울이며 꽃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일홍 또한,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었을 것이다. 사람 이나 꽃이나 시절인연처럼 잠시 만나 반겼을 것이나 서로가 모르게 받은 위로가 있어 그 시간을 조금 더 밝게 걸어갔을 것이다.



신술원 시인 /

시인 /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문학과 사람과 함께, 마음 속 꽃길을 걷는 시간.
삶은 은유이고, 사람은 꽃입니다.

<오늘의 시>

멀리서 본다 /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당신과 있는 마음치유의 순간>

가을이 문 앞이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스며든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한다.
“잘 지내니?”“건강은 어때?”짧은 안부 한마디가 마음 속 묵은 시간의 무게를 녹인다.

엄마는 늘 같은 말을 건넸다.“밥 먹었니?”“어디 아픈 데는 없고?”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밥 냄새 같은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 다정한 말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문득 그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금세 촉촉해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그러나 마음이 담긴 말은 생각보다 드물다.
익숙함에 기대 말을 생략하고조심스러움에 말을 아끼다 보면말은 있지만 마음이 빠진 빈말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일까.때로는 단 한마디 다정한 말이 깊은 상처를 감싼다.
위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태도다.
상대의 순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말,그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말은 언어를 넘어 울림이 된다.
그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을 덮어준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다.거기에 마음이 더해지면그 다리는 더욱 넓고 단단해진다.
서툰 표현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마음은 그걸 알아챈다.어쩌면 다정한 말은언어를 빌린 마음의 온기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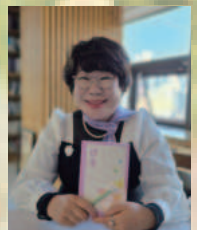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묻는다.나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실패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나는 내게 어떤 말을 하는가.
“많이 힘들었지”
“충분히 애썼어”

다정한 말, 자기자비의 말이 필요하다.자신에게 먼저 다정해질 수 있을 때타인에게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진다.

시는 그런 다정한 말을 배우게 해주는 좋은 길동무다.시는 마음이 머무는 언어다.
한 편의 시를 읽고 나면이름 없던 감정이 조용히 이름을 얻고,
이름을 얻은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그것이 시가 가진 치유의 힘이다.

가을이 한껏 깊어가는 오늘,내게 한마디 다정한 말을 건네보자.
“충분히 잘하고 있어.”“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괜찮아.”
말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자란다.
안부는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건네고 싶은 다정한 한마디는?”
“마음에 남은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 안부는?”



김선순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봄봄문학상담연구소 대표

군산의 대표 전설,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다!

시립교향악단,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 <은파, 세바우전설> 창작음악극 선보여

2025. 10. 16. (목) 19: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출연진: 연성민, 박지현,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9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예매가능

관람예매: 공연당일 공연 시작 1시간 전(오후 6시 30분)부터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층 헌정대포소에서 선착순으로 판매(카드결제만 가능)

티켓수령방법: 인터넷예매, 공연당일 군산 예술의전당 로비 현장수령

주최: 군산시 후원: 군산시립교향악단 공연문의: 063-454-5556, 454-5528 www.gunsan.go.kr/gunshol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0월 1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 '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 음악극 [은파, 세바우 전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군산의 대표 설화 '세바우 전설'을 음악과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음악극으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이다.

'세바우 전설'은 은파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전 '미제지' 방죽 일대에 전해 내려오던 군산의 옛이야기이다.

권선징악과 무욕의 교훈을 담은 이 전설이 이제 감성적인 음악과 극적인 구성을 갖춘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시켜 군산 시민에게 선보이게 됐다.

이번 음악극을 만든 이정연 작곡가는 주

로 어린이를 위한 곡을 창작하고 있으며, 어린이 창작음악단체 '소리결'과 영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속 작곡가를 맡아 국내외 음악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여기에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명근이 지휘를 맡아,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설과 성악이 조화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야기 해설은 풍부한 표현력과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받는 소프라노 구은경이 맡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이 작품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시립합창단 소속 알토 김신혜가 머느리 역, 스님역은 테너 이철, 바리톤 박건우가 찰금대감(시아버지) 역으로 출연해 각 인물의 개성과 감정을 무대 위에서 깊이 있게 그려낸다.

예술의전당은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음악극을 통해 남녀노소 관객들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과 교육적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현장 예매는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공연장 1층에서 가능하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토로 203
www.arts.gunsan.go.kr/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 경제’ 군산시, 타운홀 미팅 개최

현장에서 시민 의견 즉석 청취, 제안함 운영 통해 정책 반영 확대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 경제’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지난 28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위치한 ‘신관동 여늘’에서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23년 2월부터 운영해 온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토크&톡」의 연장선으로, 강임준 시장이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기혁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청 전반 및 사회적경제 정책 대화, 즉석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보고 형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바로 응답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꾸며져 더욱 현장감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구매 확대, 사회적 금융제도 도입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강임준 시장은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시는 행사장 입구에는 ‘시민 제안 서식’과 ‘시민 제안함’을 설치해, 비치되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자유롭게 건의 사항과 정책 아이디어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혔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타운홀 미팅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산 경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나온 제안과 제안함을 통해 접수된 시민의 견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의 10월, '진짜 시간여행'으로 물들다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 10월 9일~12일 개최



군산시가 오는 10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를 일원에서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1899년 개항기부터 2050년 미래까지 150여 년의 군산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산업화의 번영이 교차했던 도시이자,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현장이다. 또한 수많은 근대 건축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 손꼽힌다.

또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타짜>

<화려한 휴가> 등 주요 작품의 촬영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 '영화촬영의 도시'라는 매력을 더욱 더해가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축제장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머시브 축제'로 방문객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대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 축제는 단순히 근대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근대·현대·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무대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메인 축제장은 대학로 일대에 집중 배치되며, 구간별로 과거·근대·현대·미래를 상징하는 구역으로 꾸며진다.

특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앞에 세워지는 대형 특설무대와 박물관의 독특한 외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공연은 오직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이곳에서는 나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영상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간여행축제』누리집 (festival.gunsan.go.kr)과 사회관계망(인스타,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지원(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한 간담회 개최

법안 통과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의정실에서 전북지방법원호사회와 군산지원(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수 전북지방법원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덕춘 간사가 참석했으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에는 현재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소년·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과 사법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주지법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5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사건 수요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년범 선도, 다문화가정 보호, 가정 폭력 사건 등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상담·복지·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포함하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도내 각 기관과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전북 서부권(군산·익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의회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발의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주가정법원과 함께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동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 '계곡가든 꽃게장'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김철호 대표의 36년 정성
1991년 개업 후 연중무휴, 추석에도 정상 영업



군산 '계곡가든 꽃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예약 주문으로 바쁜 손길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다. 명절이 돌아오면 변함없이 즐겨 찾는 명품 꽃게장을 이번 추석에도 맛볼 수 있게 됐다.

1991년 개업 이래 36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군산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 맞이한 김철호 명인과 계곡가든의 꽃게장. 오늘도 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철호 대표와 아내 박명옥씨는 "꽃게"로 살아 온 인생이니만큼 다른 음식에는 돌리지 않고 오로지 꽃게 명가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여기서 만든 꽃게장은 위생과 저장성을 개선한 제조 방법과 소스 제조 방법으로 특허와 함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인증과 전통식품 인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에서 '한식대가'로 선정하기도 한 김철호 대표는 전통의 게장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혁신해 온 신지식인. 특히 요즘은 밀키트 제품을 뛰어

넘는 간편식으로 게장을 유통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만드는 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호남의 맛으로 선정돼 전통명가 선정, 전북도지사 인증,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계곡가든 꽃게장. 4인실부터 100석 대형실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손님을 맞는 계곡가든은 올 추석에도 변함없이 무휴 영업을 이어간다. 계곡가든은 올해 선물세트 1호 '간장게장 1kg(3~4마리)+전복3미'를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택배 예약과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곡가든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계곡가든 택배 상품(단위:원, 택배비 포함)

▲추석선물세트1(간장3~4마리+전복3미)100,000 ▲추석선물세트2(간장1마리+새우10마리+4미)50,000 ▲간장게장500g(2마리)57,000 ▲간

장게장1kg(3~4마리)93,000 ▲간장게장1.5kg(4~6마리)131,000 간장게장2kg(6~8마리)171,000 ▲간장게장3kg(10~12마리)255,000 ▲간장게장4kg(14마리 내외)334,000 ▲양념게장 1kg(3~4마리)78,000 ▲양념게장 1.7kg(5~6마리)103,000 ▲아리찬세트1(간장2마리+양념2~3마리)89,000 ▲아리찬세트2(간장2마리+새우10마리)69,000 ▲전복장 1kg(16미 내외)85,000 ▲새우장2kg(40마리 내외)38,000 ▲돌게장1kg(15마리 내외)38,000

주문: (063)453-0608 / 계곡가든 홈페이지(www.carabland.com)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건강은 한방애(愛)'

2025년 농촌전문활동가 육성 사업, 한의학적 건강관리
건강한 마을은 주민손으로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활력을 위하여 전문 활동가를 육성하는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난 8월 18일부터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촌전문활동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농촌마을에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 양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 지역 활동가 양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건강은 한방애(愛)'는 '한의학+사랑'라는 의미.

침술과 마사지, 부항, 한방차 등등 일반인들이 따라 배워 가벼운 질환을 한 번에 해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아로마 마사지 ▲키네시오 테이핑 ▲한방차 만들기 ▲이침의 원리와 혈자리 실습 ▲ 부항 요법의 원리와 실습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건강 관리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교육 이수 후에는 배후마을로 찾아가 직접 건강돌봄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건강돌봄케어 사막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가 마을 건강 리더로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건강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의학적 건강 관리 분야 내용을 담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주민 간의 유대와 돌봄 문화가 농촌 사회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좋은 기자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 감성 관광지로 육성하자

송미숙 시의원 5분 발언, 대표 관광 명소 육성 주장
도전과 역경 극복, 감성 관광 명소 가능성 높아
지붕 안전 진단과 체육관 보존 용역 추진 선행 요구



영화 촬영의 성지(聖地)로 떠오르고 있는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을 ‘도전과 역경 극복’의 상징으로 보존하는 한편, 감성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깊은 주장이 나왔다.

본지가 낡은 격납고를 지붕으로 얹은 건물 ‘군산복싱체육관’ 1관이 영화 촬영 장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근대역사 관광과 연계한 융합 문화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지 3개월 만이다(본지 6월 5일자 1면 보도).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복싱체육관을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하자”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군산 관광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의 첫 걸음은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성 관광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안이 성과를 내려면 50년 된 격납고 지붕에 대한 안전진단과 군산복싱체육관 보존·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또한 “근대역사의 공간인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을 보존해 ‘도전과 역경의 상징’으로 관광자원화하고, 군산 관광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발언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 2018년에는 500만 명을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약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숙박객 비율, 체류 시간, 재방문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들해진 근대역사 관광에서 벗어나, 군산 관광이 체험과 공간이 어우러진 ‘감성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 관광지로 지목된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은 지난 1955년 개관해 복싱인들의 꿈을 간직한 상징적 건축물로,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 추억이 깃든 장소다.

특히 국내에 단 두 곳만 남아 있는 반원형 격납고 지붕 구조를 보존하고 있으며, ‘역

경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아 전국 영상 제작자와 사진작가들에게 촬영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 복싱의 황금기를 이끈 군산 복서들의 사진, 유품, 영상을 전시하고 복싱 체험 관람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 ‘복싱인의 길’ 테마 코스로 개발해 복싱 체험과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근대 역사 테마가 여러 도시로 분산되며 관광객들의 흥미에서 멀어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월명동 일대의 근대역사관광 테마에 더해 ‘도전과 역경 극복’을 체험하는 감성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이 주장에 대해 군산시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명룡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시 시청로 17
council.gunsan.go.kr

군산시의회, '군산항 명칭 되살려라'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송부
해양수산부,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만명으로 명시
시의회, 개항 126주년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 훼손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통합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결정하자 군산시의회가 '군산항' 명칭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명으로 명시했다.”며 “개항 126주년을 맞이한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2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지해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국 모든 항만이 그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유독 ‘새만금항’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

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새만금신항인 만큼 본질적으로 군산항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군산항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군산항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 보존 건의문을 채택 및 전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 차원의 건의문을 도 다시 채택한 것.

시의회는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안)은 실제 항만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현해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항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

이 건의문을 통하여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 ~ 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새만금항의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명시된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지난 19일 접수했으나 22일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채명룡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조향순 개인전 개최

사계절을 수놓는 꽃과 자연의 감성을 담아낸 한국화 20여 점 선보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8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당 조향순 개인전「꽃들의 향연」을 장미갤러리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철쭉, 연꽃, 코스모스, 동백 등 계절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을 주제로 한 한국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꽃은 한국화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소

재로 사용되었으며, 일제로 사군자에서의 꽃은 선비의 고결함과 계절의 순환을 은유해 왔다.

관람객들은 이런 전통적인 상징성과 작가의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전시작들을 통해 '꽃'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개인전의 주인공인 조향순 작가는 전통 한국화의 사실적 표현 기법과 담백

한 색채를 통해 꽃의 생명력과 순간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꽃향기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를 포함해 14번째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단체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종합대상, 전라남도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에서 한국화 2분과 이사, 한국현대미술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장, 한·중 민간인 친선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일상과 내면의 이야기를 색으로 담았다"며 "시간의 곁을 따라 흐르는 자연의 온기가 관람객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자연을 담은 작가의 한국화는 관람객들이 일상의 피로를 잊고 꽃과 자연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갖게 할 것"이라며 "아무쯁록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의 순수한 생명력과 자연스러운 색의 울림을 통해 잠시 일상의 속도를 내려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벨트화지역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해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군산시,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지정 건의

“국내 1호 스마트그린산단 새만금, RE100 지정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해야”



강임준 군산시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 정책관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인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발맞춰, 새만금·군산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됐다.

또, 새만금은 이미 2022년 7월 7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정부 정책의 상징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당시 기업들은 새

만금이 곧 RE100 산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와 입주를 준비했으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으로 기투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기 중인 세계 유수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새만금의 RE100 산단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도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보유하고 있으나, ‘스마트그린 산단 1호’라는 상징성과 기투자 기업 보호, 글로벌 투자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새만금이 우선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는 7GW 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에 민감한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또한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의 입지 조건도 충족한다.

이번 건의를 통해 군산시는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은 국가가 약속한 스마트그린 1호 산단이다. 이제 RE100 산단 지정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초당 백숙자 개인전<먹빛의 소리> 개최

문인화의 깊이와 내면의 정서를 담은 수묵화 30여 점, 8월 19일 ~ 10월 19일까지 전시



화를 통해 자연과 삶을 묵묵히 응시해 온 작가의 내공이 담긴 수묵화 30여 점이 선보인다.

백 작가는 “이번 전시는 오랜 작업의 흔적 속에서 길어 올린 묵향의 시간이, 관람객에게도 잠시 멈추어 사유할 수 있는 예술적 침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국적 정서가 녹아든 수묵화의 미학을 재조명하고, 전통 회화의 현대적 감각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열린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 공간으로, 해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8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초당 백숙자 작가의

개인전 『먹빛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40여 년간 수묵과 문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백인백색의 《정물(靜物)과 정물(情物) 사이》

“시간에 잠긴 생과 감정을 머금은 사물 사이”



이당미술관(전라북도 군산)은 오는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진인문연구회 백인백색의 12번째 시리즈 《정물(靜物)과 정물(情物) 사이(Between Still Life and Affectionate Objects)》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사진가 김혜원이 기획하는

전시로, '정물'을 단순히 고정된 대상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서사를 담아내는 '정물(情物)'로 확장해 보여준다.

사물은 더 이상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치유를 담아내는 매개체로 다가오며, 텍스트와 설치, 기록과 실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정물은 고정된 대상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이야기로 변주되며, 관람객에게 감각적 경험과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초대전 《정물(靜物)과 정물(情物) 사이》展은 지금까지 소비문화, 생태, 장소애, 언어, 추상, 신체, 자화상, 자연 등 다양한 키워드를 탐구해 온 <백인백색> 연속 기획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전시는 반복된 정물 사진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성·해체와 재구성·기억화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정물의 새로운 문맥을 제시한다.

참여 작가는 강리·차경희·박성민·박가현·손이숙·최영귀 등 6인으로, 각기 다른 시선으로 정물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강리와 차경희는 일상의 식기와 음식, 생존과 돌봄의 시간을 예술적 장면으로 전환하며 정물의 일상성을 보여주고, 박성민과 박가현은 꽃과 잎을 해체·재배열하거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설치 형식으로 풀어내며 정물의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또한 손이숙과 최영귀는 사적 유물과 애장품을 매개로 시간과 존재의 흔적을 되살리며 정물을 기억의 저장 매체로 확장한다.

작가들은 단순히 사물을 찍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관계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당미술관
군산시 구영6길 108번지
<http://www.yidang.org/>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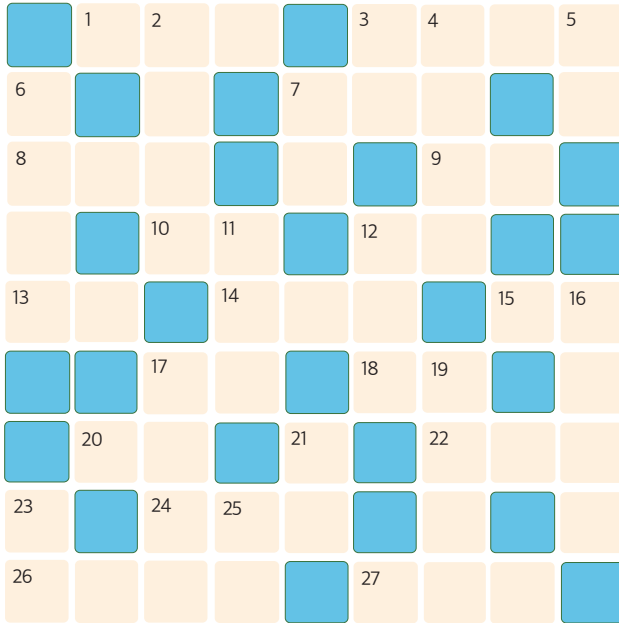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9



과	밀	광	복	절	고	음
일	월	성	신	단	독	주
여	도	기	망			
유	행	가	거	이	태	원
		해	양	수	산	부
마	고	자	기	제	단	포
가		하	신	양		
쾌	도	난	마	사	주	팔
유	로	평	신	도	경	기

<168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1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신0수.
- 03 페루 중남부 안데스산맥에 있는, 잉카의 성곽 도시가 있던 터.
- 07 현대의 특성이 느껴지는 방식이나 모양.
- 08 드나드는 문을 지키는 사람.
- 09 지는 해 주위로 퍼지는 붉은빛.
- 10 물건을 날개로 팔지 않고 모개로 팔.
- 12 얇고 긴 강철 띠를 돌돌 말아 그 풀리는 힘으로 시계 따위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
- 13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을 좇아 그대로 행함.
- 14 국가 방위에 관한 군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
- 15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 17 성을 내며 노여워함. 또는 그런 감정.
- 18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 20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00아비.
- 22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
- 24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 26 로마가 수도인 나라.
- 27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세로 열쇠

- 02 일정기간동안음식을 먹지않으면서하는기도
- 03 굵고거친삼실로짚카디란자루.
- 04 가을바람에떨어지는나뭇잎.
- 05 백로와한로사이에들며밤과낮의길이가같아지는절기.
- 06 한번물음에대하여한번대답함.
- 07 버의갈갑질만벗겨낸살.
- 11 나라의주권이나이권을남의나라에팔아먹는행위를하는사람.
- 12 몹시많이모자람.
- 16 임금이아닌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대왕대비가이를도와정사를돌보던일.
- 17 석가모니의몸에서나온사리.
- 19 나랏일을 돕고백성을 편안하게함.
- 21 뱀을잡아파는것을직업으로하는사람.
- 23 꽃이나포도따위열매를세는단위.
- 25 먹을것이없어배를끓는것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